



여자컬링대표팀이 18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예선 경기에서 12-5로 압승을 거두며 사상 첫 메달 획득에 대한 희망을 부풀렸다.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결승에서 5-12로 패했던 중국을 상대로 똑같은 스코어로 승리한 것이라 의미가 더 컸다. 주장 김은정(왼쪽에서 두번째)이 관중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강릉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기적'을 써가는 '의적'...컬링 태극낭자들 승승장구

加·스위스·영 세계 1·2·4위 팀 연달아 격파 강한 팀에 강해 '의적' 별명...중국마저 꺾어 예선 4승1패 순항...한국컬링 새 역사 기대



'빙판 위의 체스'로 불리는 컬링은 1998나가노 대회 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16세기 중반 스코틀랜드의 심심풀이 놀이 중 하나였던 컬링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유는 바로 용이한 '접근성' 때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의 즐거움 또한 매우 크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여자대표팀이 관중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김경애~김선영~김영미~김은정~김초희로 구성된 대표팀은 조별 예선에서 예상외의 선전을 펼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중이다.

한국 여자대표팀의 세계랭킹은 8위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10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해당한다. 올림픽 컬링은 예선에 참가한 10개 팀 중 상위 4개 팀에게만 결선(메달경쟁 플레이오프) 행 티켓이 주어진다. 우리 대표팀은 단순히 랭킹으로만 봤을 때 분명 메달과 거리가 있는 팀이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올림픽 이전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약체로 꼽힌 우

리대표팀이 연달아 '거함'들을 침몰시키며 반전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다.

대표팀의 첫 상대는 세계랭킹 1위 캐나다였다. 캐나다는 4년 전에 열린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예선전 무패, 11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팀이다. 이번 대회 역시 강력한 우승후보로 뽑혔으나 태극낭자들의 돌풍에 발목이 잡혔다. 한국은 15일 열린 예선 첫 경기에서 캐나다를 8-6으로 격파하며 이번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일본에게 첫 패를 당했으나 곧바로 16일 만난 세계랭킹 2위 스위스를 7-5로 물리쳤다. 이틀동안 세계랭킹 1~2위 팀을 모두 무릎 꿇리며 단숨에 조 상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17일에

열린 '컬링 주주국' 영국(세계랭킹 4위)과의 대결은 이제 대표팀이 더 이상 약체가 아님을 증명한 무대였다. 경기운영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7-4의 결과로 예선 3승째를 기록했다.

세계랭킹 1·2위와 4위를 연달아 격파해 '의적'이란 색다른 별명을 얻은 여자 대표팀은 18일 열린 중국(10위)과의 맞대결에서도 손쉽게 승리를 추가했다. 후공으로 시작한 1엔드부터 단숨에 3점을 선취해 기본 좋게 출발했다. 중국이 후공인 2엔드와 4엔드에 1점씩을 허용했지만, 다시 후공을 잡은 3엔드와 5엔드에 3점과 4점을 추가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6엔드와 7엔드에는 연달아 점수를 내줘 잠시 위기를 맞

았지만, 침착하게 8엔드에 2점을 추가해 중국의 항복을 받아냈다. 최종점수 12-5로 승리하면서 예선 4승1패를 기록했다.

컬링의 올림픽 역사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까지 컬링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그러나 대표팀의 이번 깜짝 활약으로 무관의 역사를 평창에서 끝낼 기회가 찾아왔다. 결선까지는 이제 2~3승 정도가 더 연으면 안정권이다. 남은 4경기 상대가 모두 만만치 않지만 앞서 강호들을 격파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심분 살린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컬링 태극낭자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강릉 |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올림픽 3연패 '팀 오서'의 힘

밴쿠버-김연아 소치-평창-하뉴 금 배출

동계스포츠는 국가별 팀 구성이 이미 깨진지 오래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살아있는 역사 이상화(29·스포츠토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식훈련에서 캐나다 선수들과 함께 있는 모습

이 자주 목격된다. 전담 지도자가 캐나다 대표팀 코치인 케빈 크로켓이기 때문이다.

'피겨 퀸' 김연아의 은사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브라이언 오서(57) 코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무려 5개 국가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다국적 팀의 리더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금메달을 목에 건 일본의 슈퍼스타 하뉴 유즈루와 한국의 기대주 차준환, 그리고 남자 싱글 동메달리스트 하비에르 페르난데스(스페인)에 여자 싱글 가브리엘

데일먼(캐나다), 엘리자베트 투르신바예바(카자흐스탄)까지 모두 오서 코치가 전담 지도를 맡고 있다.

자신은 캐나다 국적이지만 한국 대표팀으로 AD를 발급 받은 오서 코치는 평창에서 올림픽 3연패에 성공했다. 17일 하뉴는 총점 317.85점으로 우승하며 남자 싱글 아시아 최초 올림픽 2연패에 성공했다.

오서 코치는 2010 밴쿠버에서 김연아, 2014 소치와 2018평창에서 하뉴가 금메달을 목에 걸

며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 제자를 배출하는 큰 영광을 안았다.

'팀 오서'의 일원인 하비에르 페르난데스도 동메달을 수상하며 시상대에 올랐다. '남자 김연아'로 불리는 차준환은 15위에 오르며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피겨스케이팅 명(名) 지도자로 꼽히는 오서 코치는 출전하는 선수들의 국적에 따라 대표팀 점퍼를 바꿔 입는 등 세심한 에티켓도 잊지 않았다. 강릉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차준환과 브라이언 오서(오른쪽) 코치. 스포츠동아DB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대할인 행사
 "저잡음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대할인 행사
 2018년 최신제품
 본 제품은 의뢰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사용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럴 때 사용하세요
 ▶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을 때
 ▶ 상급사 생체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잔량 확인기능 내장
 하울링 방지기능 내장
VA3000
 www.sunsea.kr
 무료상담전화: 1661-1224
 서울사당지사: 02-522-2710/1600-3851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씬모아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무료체험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 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SAFA 대한민국 전문업체
 비디오 라디오 음악 노래방 녹음
휴대용 충전식 동영상과 노래방을 내손 안에!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SAFA
 ▶ 충전식 휴대용 SAFA 7인치 화면 액정 장착
 ▶ 언제 어디서나 노래방 음원 재생 (마이크만 연결하면 그 곳이 바로 노래방)
 ▶ 언제 어디서나 HD급 비디오, 영화, 동영상 감상
 ▶ 라디오 기능으로 재난시에도 라디오 청취
 ▶ 녹음기능, USB 메모리 사용가능
 ▶ 등산, 낚시, 여행갈 때 야외 필수품
 정품 2018년 최신제품
 이미지, 남진에서 박현빈, 장윤정까지 1100곡 수록!
 <노래방 음원 발매!> 도전1100곡 7080 노래방 SD카드
 전국노래방 55곡 음원 선착순 무료증정! 추억의 팝송 1,000곡 발매!
 행사기간중 50분 한정 마이크, AC충전기, USB 스틱 증정
 선물용으로 최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MSIP REI AFA PMP-50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 분 제품보호용 필름을 제거하신 분 서울사당지사: 02-522-2710
 무료체험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 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무료상담전화: 1644-2464
 서울사당지사: 02-522-2710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